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마부의 아내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헤어질 결심을 통보했다. 마부는 갑작스런 부인의 이혼통보에 당황했다. 제(齊)나라 재상인 안영의 마차를 모는 직업은 비록 신분이 낮은 일이지만 하나 제나라 강력한 실세 안영을 모시는 일하기에 사람들은 알아서 자신에게 잘 보이려 했다. 마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통보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었던 마부는 아내에게 왜 헤어지려 하는지 물었다.

“당신은 재상을 모시는 마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본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제나라 실세인 안영은 겸손하게 마차를 타고 있는데, 당신은 권력의 실세인양 의기양양(意氣揚揚)하게 마차를 몰고 있으니 당신의 부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라 마차에 타고 있는 권력자에게 한 것인데, 주제도 모르고 권력의 주변에서 함께 누리려 하니 그것이 제가 당신과 헤어질 결

헤어질 결심

심을 한 이유입니다.”

사마천 ‘사기 안영과 마부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권력의 주변에는 늘 주변 실세가 있다. 권력자는 이미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경계한다. 그러나 권력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많다. 권력자의 배우자, 친척, 비서실 직원, 수행 기사,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은 모(母)권력의 주변에서 자(子)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子)권력 주변에 모여든다. 명품과 뇌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아부와 아첨으로 달래기도 한다. 잠만 잘못하면 무심코 받은 뇌물과 정탁 수락에 모(母)권력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한다.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 기생 권력에서 시작된다는 예는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환관과 외척들, 심상시와 측근들,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주변 실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족속들이었다.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결국 화를 키웠던 것이다.

돈이 많은 부자거나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은 의외로 교만함이 적다. 실세가 교만하면 그만큼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귀한 사람보다 더욱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측근이나 주변사람들이다. 오늘 나는 어떤 부귀한 자와 만났고, 누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고 떠드는 사람치고 정말 실속 있는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들이다.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마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날부터 마부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겸손하였다.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한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개과천선하였던 것이다. 평소와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본 안영은 그 이유를 물었고 마부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안영은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교만함을 접은 마부를 기특하게 여겨 대부(大夫)의 벼슬에 천거하였다. 일개 마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아내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대부의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역사 기록을 읽다보면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마부가 멋있다.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 마부는 멋진 사람이다. 안영은 더 멋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의 변화를 인정해 줄줄 아는 상사였다. 그러나 가장 멋진 사람은 마부의 아내다. 현명한 아내가 위대한 남편을 만들었다. 남편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주었던 마부 아내의 용기는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배우자의 부정을 알면서 눈감거나 조장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 결국 부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헤어질 결심으로 충고한 마부의 아내가 되어야 사람들의 용서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대에 그런 마부와 부인을 보고 싶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오늘은 출출하기도 하고 입도 심심하여 교회 근처 노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세 군데의 노점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호떡을 파는 곳이 있고, 그 옆에는 올 겨울부터 봉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타코야끼를 판매하는 노점이 있는데 두어 번 사 먹은 적도 있다. 그 중에 발걸음이 쉽게 향하는 곳은 바로 봉어빵 노점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황금잉어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도 보였다. 봉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은 얘기지만 어떤 글에서 ‘황금잉어빵’의 정체를 밝힌다 라는 여행기를 읽은 적이 있다. ‘황금잉어빵’의 정체를 밝힌다. 금인가, 잉어, 빵이네’ 이름은 황금잉어를 가져다 붙이고 그 모양도 잉어지만 결국은 빵일 수밖에 없는 그것의 정체를 잘 나타내 주는 여행기이다.

2019년 1월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넘어선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의 장면 중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빵 터지게 한 대사가 있었다. 동료 경찰들이 치킨집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본인들의 직업인양 물

황금잉어빵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고 있을 때 반장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었다. 경찰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다가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라고 하며 상냥하게 전화를 받는데 그 장면에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이 통닭집이 잘 되는 바람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서도 저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제 아무리 수원 왕갈비 양념을 첨가했다 하더라도 본질은 치킨일 수밖에 없다. 손님이 주문을 하여 종업원이 내오며 수원이라든지 왕갈비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라고 해야 가장 어울리지 않는가 말이다.

정체성(正體性=identity)이란 사물 본디의 형태가 갖고 있는 성격을 말한다. identity란 단어가 ‘확인하다(identify)’란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정체성이 자기가 아닌 남에 의한 확인과 증명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일 년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생겨났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람들이 그들을 그리 불러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들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연상케 했다고 할 수 있었다.

어릴 적 서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정자나무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대뜸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셨다. 이름을 말씀해 드리니 이어서 분이 어디냐고 물으셨고 나는 아버지가 평소 가르쳐 주신대로 경주 최씨 안과정공파 삼십사세 손이라 대답해 드렸다. 그분은 아주 잘 배웠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어른이 물을 때는 최씨라 하지 말고 최가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할 테지만 내가 어릴 때는 이 물음과 대답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었다. 당시에는 어떤 집안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었던 거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타인이 부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는 누구의 소유인가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도 나타나 있다. 봉어빵이든 잉어빵이든 재료나 만드는 방식도 같고 맛도 같다. 사람은 세상에서 인종, 국가, 이름, 직업 등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를 닮은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기고

관광 통해 방문인구 증가 애쓰는 강진과 고흥

강진 ‘반값 가족여행’은 강진군 관외 주민이 사전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강진을 방문했다는 인증을 통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의 50%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정책이다. 관외 주민의 체류시간, 소비 증가분과 아울러 환급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강진 방문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은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전남 감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되었다.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은 ‘우주발사전망대’를 대상으로 중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방문인구가 생활인구로 전환되어 지역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책들은 강진과 고흥을 제대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매력과 방문인구에 발산시켜 지역에서의 소비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강진과 고흥의 정책들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그 성과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시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강진 ‘반값 가족여행’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자들을 잠재적인 생활인구 후보 계층으로 놓고 다양한 정책 수요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구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방문객의 수요와 지역의 매력도, 접근성, 충성도, 소비성 등을 추론해야 한다. 그리고 강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핵심 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강진에서 방문하고 체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흥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완성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주발사전망대와 주변 연계 지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카이워크, 마미마루길과 노래길, 쪽빛너울길 조성뿐만 아니라 남해해변을 ‘서퍼의 낙원’으로 브랜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빈집 소유자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사용권을 장기간 체류하는 외지인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사업도 시도해 볼적이다. 강진과 고흥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인구 증가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다면 유사 정책들의 확장판들이 전남의 기초자치체에서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다. ‘A’ 지자체는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서 회사 동료, 동호회 회원, 학교 동문들까지 인센티브 여행의 대상 계층으로 확대 운영할 수도 있다. ‘B’ 지자체는 관광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형 기반시설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인구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방문인구를 통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려는 다양한 시책들이 전남의 공동 융합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인구 증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이다. 한 번만 오는 지역보다는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체류인구를 자기지역에 늘려나가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만 방문하는 인구가 없는 강진과 고흥, 그리고 전남을 위해 더 많은 시책들이 발굴되기를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社說

‘318 프로젝트’ 획기적 저출생 대책되나

전남도가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생수당을 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나서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교 졸업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름하여 ‘318 프로젝트’인데 국가·광역·기초자치체 등 3자가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출생수당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그제 도청에서 전남 22개 시장과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별로 조례 제정과 예산 협의 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이나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이나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것이 파격적이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4320만원, 둘째 아이가 있다면 8640만원, 셋째를 낳으면 1

억29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7세까지만 해당된다. 전남도는 전남을 시작으로 318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독일은 18세까지 매달 36만원, 스위스는 16세까지 19만원, 네덜란드는 17세까지 38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이 1.5명 이상으로 올라왔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자치단체가 파격적인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부에도 출생수당 20만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선 만큼 정부도 호응해 318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부지 비용에 AI 영재고 건립 차질 빚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건립이 암초를 만났다. 수백억원 대의 부지 비용 마련에 발목이 잡혀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총 사업비 1038억원(전액 국비) 중 AI 영재고 실시계획 비용 31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기본 계획상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에 2025년 착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립 예정 부지인 광주과기원 건너편 부지(2만3100여㎡)의 매입 비용이 문제다. AI 영재고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200여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첨단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원가는 ㎡당 90여만원(평당 300여만원)으로, 학교 부지인

비 20% 수준의 땅값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차선책으로 광주과기원 내 부지도 검토했지만 광주과기원 측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건립 등 다른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이 2022년 12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서 발의된 이유 없이 세 차례나 보류된 끝에 해를 넘겨서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AI 영재고 설립이 특별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AI 전문가 양성의 디딤돌이 될 AI 영재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경기 내용에서 이기고 승부에서도 이기는 게 브라질 축구라면, 내용에서는 우세하지만 승부에서는 지는 것이 스페인 축구라고 한다. 스페인 축구가 실력보다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프리메라리가의 ‘양속’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원 팀’으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라운드에서는 동료 선수 간 몸싸움도 가끔씩 일어난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카메라톤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카메라톤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치고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기도 했다. EPL 역사상 최고의 난투

쟁 그룹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자기들끼리만 어울렸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능력이다. 어느 팀이나 내부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의견충돌과 불화가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해결 해야 한다. 클린스만은 재택근무에 전락부재라는 지적에도 선수들과의 소통에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또한 허구임이 이변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이해 못할 행동이다. 협회는 영국의 한 매

자중지란

경기 수와 수비수가 서로 치고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기도 했다. EPL 역사상 최고의 난투극은 2005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일어났다. 뉴캐슬의 리 보이아와 키어런 다이어는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유니폼이 찢어질 정도로 싸우다 둘 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해외 축구에서나 봤던 행태가 국가대표팀에서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아시안컵 4강전 전남 밤 식사 자리에서 선수들 간 말다툼이 있었고, 주장 손흥민이 먹살을 잡자 이강인이 주먹을 날렸다고 한다. 대표 팀이 20대, 30대, 그리고 1996년

체가 한국 팀의 불확실성을 보도하자 곧바로 다음을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내부 갈등을 외부로 알려 선수단 스스로 해결할 기회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을 향한 여론의 분노를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은 다음달 21일과 26일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른다. 이젠 동남아 팀과의 경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함께 풀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을까. /유재만 편집담당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